

탈북 새터민 25명 구인사서 템플스테이

“고달픈뎌 언제나 절에 오세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평화와 자유를 찾아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우리 새터민들은 그동안 불법의 진리나 우리 전통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인사에서의 사찰문화체험을 통해 맺어진 인연을 통해 부처님께서 우리 새터민들에게 큰 의지처가 되어 주십시오”

6월 1일 천태종 흥본산 단양 구인사 관성당. 천태종이 주최하고 나누며나눔이 운동본부 주관한 ‘제 1회 새터민 템플스테이’ 입재식에서 새터민 대표 김경영씨(27·가명)가 발원문을 낭독했다.

사회부장 무원 스님은 “여러분들이 낯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며 “이를 극복해



관문사 다도회 어머니 회원들이 새터민들에게 다도법을 설명하며 차를 함께 마시고 있다.

‘예불·관음정근·다도’ 생애 첫 체험 “낯설지만 마음 차분해져 좋습니다”

나가는 의지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종교적 신념과 정성스런 기도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행사 참가자들은 주로 중국과 몽골 등을 거쳐 탈북한 남자 새터민 25명. 이들은 현재 통일부 산하 탈북자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던 중 천태종의 요청으로 이번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 참가자 대부분은 중국에 피신하고 있을 때 목사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인지 개신교 신자가 대부분이다.

입재식후 새터민들은 무원 스님의 안내로 구인사 경내를 둘러보고, 소백산 기슭에 있는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 대조사의 묘(적멸궁)를 참배했다.

저녁 공양 전의 일정이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사찰의 경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오리엔테이션이었다면 저녁 공양 후에는 예불의식, 관음정근, 다도체험 등 본격적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경내에 울려 퍼지자 모두 대웅전에 모였다. 부처님 앞에 선 스님들을 따라 새터민들은 절을 올랐다. 예불 순서와 독경 등 모든 것이 낯설어 얼굴에는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지만 집전스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옆에서 힐끔 힐끔 쳐다보며 ‘예불’과 ‘반야심경’을 열심히 따라했다.

이어 관음정근이 진행됐다. 이를 따라해 본 새터민 김지혜(54·가명)씨는 “스님은 아주 생각깊고 정중하며 마음속의 망상을 떨쳐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자

나났다. 네번이나 탈북하다 잡혀 갇은 고초를 당한 끝에 간신히 지난해에 성공했다는 현몽일제(27·가명)는 “차 마시는 것도 하나의 도이며 예법인지 몰랐는데 차를 마시니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다”고 신기해 했다.

이튿날 아침예불을 끝마친 참가자들은 오전 8시 화랑식을 마치고 운담동굴 등 인근 관광지 견학을 떠났다. 무원 스님은 화랑식에서 “살이 힘들고 고달픈 때 언제든 절에 찾아 오세요. 절에 무언가를 배우러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그 안에 미소만 듬뿍 담아가시면 됩니다”고 말했다.

정말 그랬다. 다시 속세로 되돌아가는 새터민의 굵은 주름살 패인 얼굴에는, 부처님의 미소와 같은 온화한 웃음이 퍼지고 있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오직 자유와 희망에 가득찬 자신감만이 흐를 뿐 사선을 넘어온 고단한 삶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글·사진/단양 구인사·김주일 기자

봉원사, 단오날 통일기원 영산재 봉행



세계 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 18회 영산재’가 단오날인 5월 31일 태고종 신촌 봉원사에서 봉행됐다(사진).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생전에 <법화경>을 설파하던 2600년전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보이는 불교전통의식이다. 이날 영산재에서는 목탁, 태징 등의 악기에 맞춰 범음의 소리를 짓는 법패와 호죄 등의 악기를 연주하고 법고춤과 나비춤, 북청계 등을 선보였다.

이날 영산재에는 마일윤 스님(육전법을 대학 학장) 등 50여 영산재보존회 스님들이 참여했다. 김주일 기자



“우리 법당이 달라졌어요”

국군일동병원 호국 관음사 신축 이전

본지가 전국 15개 국군병원 법당의 어려움을 소개한 이후(본지 561호 8면 기사참조) 한 비구니 스님이 법당 신축 기금을 회사해 병원 법당이 신축 이전하게 되어 화제다.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국군일동병원 호국 관음사는 6월 20일 오후 3시 ‘호국 관음사 이전 신축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창고를 개조한 5평 남짓의 공간에 부처님을 모신 호국 관음사는 지원 스님(경남 함안 광명사 주지)이 기금을 보시해 신축 불사를 시작했다. 지원 스님은 호국 관음사의 어려운 현실을 주변으로부터 전해 듣고 평생 모은 4,000만원을 보시했다. 이에 간호장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신도회에서도 실시일반 1,000만원을 모금해 불사에 힘을 보탰다. 5군단 김강영 군법사



8사단 12연대 박영민 군법사(사진 왼쪽)가 5군단 김강영(중장) 3사단 18연대 김경원 법사와 함께 신축 법당을 둘러보고 있다. 아래사진은 옛 법당 모습.

지원 스님 평생 모은 4000만원 보시

신도회 실시일반 1000만원 모금

주방·화장실 등 최신시설 갖춰

와 예하 사단의 군법사들도 부대 협조를 구해 신축 법당이 건립될 부지를 선정했다.

스님과 신도들의 이같은 노력으로 호국 관음사는 주방 겸 상담실, 화장실 등을 갖춘 시설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지원 스님이 군포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개인 가족사 때문이다. 스님의 속가 아버지는 6·25 당시 3사단 23연대에 봉직하다 김화지구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했다. 당시 한살배기였던 지원 스님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지만 송고한 호국 정신을 잊지 않고 살아왔다.

출가해 부처님의 자식이 되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산화한 수많은 호국 영령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족 연금 등을 모아 2004년 10월 3사단 18연대에 총공사비 2억 1천 만원을 회사해 백골 호국사를 장전했다.

3사단 18연대 백골 호국사 김경원 군법사는 “지원 스님은 호국 불교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남은 여성동안 세대의 군법당 건립을 서원하셨다”며 “특히 스님은 군포교에 한국불교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생각에 군법당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주 군법사가 없어 인근 5군단, 8사단 연대 법사가 법회를 주관해 왔던 호국 관음사. 법당 신축을 계기로 신도회 활성화와 병원에 입원한 장병들의 위문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금요일에 봉행해오던 정기법회도 부대 사정에 맞게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위감정 후원 석가모니불상(계묘) 문의:02-2004-8291

목요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신축 법당을 운영 관리할 민간인 성직자도 위촉할 방침이다.

민간성직자란 군에 속해있는 군법사는 아니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군법사와 동일한 범위 주관, 부대 위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포교사다. 가톨릭의 경우 수녀들이 민간성직자로 병원 법당 등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5군단 김강영 군법사는 “병원 법당은 비구니 스님이 민간인 성직자로 간호 장교는 물론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장병들에게 더 많은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비구니 스님들이 민간인 성직자로 활동한다면 간호사관학교 등 여성들이 군에 진출하는 분야에서 군법사들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함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 ▷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 ▷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 ▷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 ▷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법사에 후원품 전달.
- ▷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 ▷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포교구 (02)797-7266
-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 ▷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29286 (국민은행, 예금주 군포특별교구))

만인 동참 ARS: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포교를 살립니다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신서안내

문의 : (02) 2249-5630 / 563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국민 807-21-0290-497(운상철) www.daeyou.net

꿈! 미래의 열쇠

꿈의 내용을 물어 질병의 원인을 알고, 환자의 심리상태를 알 수 있다.



어떤 일에 대해 고민한다→ 우리 몸에 잠재한 초능력이 꿈을 통해 가르쳐 준다→ 그 가르침을 잘 해석하여 슬기롭게 미래를 풀어나간다

다만, ① 우리 몸에 잠재한 유전자, 혹은 전생의 기억에 남아있는 언어로 가르쳐 주므로 자칫 틀리게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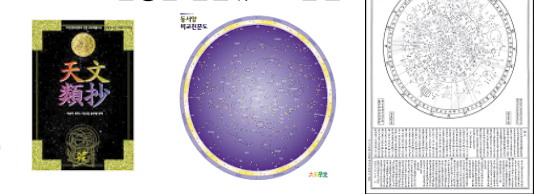
→꿈의 해석원리를 유식이론에 의해 밝히고 꿈풀이 항목마다 ‘왜 그렇게 해석하는가?’를 적어 놓은 책이 한편이면 나도 꿈 해몽의 전문가!

꿈! 미래의 열쇠/ 현오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 512쪽/ 20000원

생활활용 CD

CD성명학 2만원 / CD하락이수 30만원 CD자미두수 40만원 / CD육임 10만원 CD기문둔갑 1만4천원

천문 태음천문도 6만원 전정판 천문류초 2만원



음 그림으로 풀 천수경

천수경은 80여 불보살님들의 진실한 수행과 위신력을 표현한 글이다

당나라 황실에서 비단에 황금실로 수놓아 불보살의 친견과 선과의 힘으로 소원을 빌면서 비밀리 존중되었던 그림 천수경 그 진실된 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한 권만 필사해서 전파해도 부처되는 공덕! 그냥 천수경만 외워도 10약을 면한다는데 공덕을 쌓아 실천하는 불보살님들을 친견하듯이 그림을 보면서 외우면 그 공덕이 어찌 되겠소?

그림 천수경을 가까운 친지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그 복덕과 마음의 평화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음 그림천수경/ 대명스님 엮음/ 신국판 양장/ 337쪽 / 12000원

